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아르헨티나







Republic of Argentina

2021년 3월 17일 | 조사역(G3) 정동진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 | | | |
|--|---|---|--|
| 면적 2,792천 km ²  | 인구 4,539만 명 (2020 ^e)  |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 대외정책 경제실리외교  |
| GDP 3,827.6억 달러 (2020 ^e)  | 1인당GDP 8,433.0달러 (2020 ^e)  | 통화단위 Peso(Ps)  | 환율(U\$기준) 70.54 (2020 ^e)  |

□ 아르헨티나는 남미 대륙 남부 및 남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국가로, 칠레, 볼리비아, 파라과이, 브라질, 우루과이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국토 면적은 279만 km²(한반도의 12.6배)로 세계 8위에 해당하며, 인구는 2020년 기준 약 4,539만 명으로 추정됨.

□ 세계 3대 곡창지대의 하나인 팜파스 대평원을 보유하고 셰일가스(매장량 규모 세계 2위), 리튬(매장량 규모 세계 3위) 등 광물자원도 풍부한 자원부국이나, 원자재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아 기후 및 원자재 국제가격 변동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음.

□ 2019년 12월 출범한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현 행정부는 아르헨티나의 경제침체 및 코로나19 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성장과 사회복지를 모두 아우르는 정책을 시행하고자 함.

□ 2020년 9월 페르난데스 행정부는 총 1,070억 달러 규모의 채무재조정에 성공하였으며, 이후 IMF와 440억 달러 규모의 채무재조정 협상을 진행 중임.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62. 2. 15. 수교 (북한과는 1973. 6월 수교, 1977. 6월 단교)

주요협정 발명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보호협정('72), 상용복수사증발급각서교환('92), 투자증진·보호협정('96), 원자력의평화적이용협력협정('97), 범죄인인도조약('00), 과학·기술협력협정('03), 항공협정('04), 외교관·관용사증면제교환각서('04), 경제·무역협정('06), 문화·교육협정('07), 형사 사법공조조약('13), 취업관광프로그램협정('19)

교역규모

(단위 : 천 달러)

| 구분 | 2018 | 2019 | 2020 | 주요품목 |
|-----|---------|---------|---------|------------------------------|
| 수 출 | 536,361 | 341,475 | 336,176 |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자동차, 자동차부품 |
| 수 입 | 405,944 | 864,517 | 893,864 | 식물성물질, 금, 은 및 백금, 정밀화학원료, 어류 |

해외직접투자현황(2020. 9월 말 누계, 총투자 기준) 67건, 635,809천 달러

국내경제

(단위: %)

| 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e |
|----------|------|------|------|------|-------------------|
| 경제성장률 | -2.1 | 2.8 | -2.6 | -2.1 | -11.8 |
| 소비자물가상승률 | 41.4 | 25.7 | 34.3 | 53.5 | 42.0 |
| 재정수지/GDP | -6.7 | -6.7 | -5.5 | -4.5 | -11.4 |

자료: IMF, EIU

3년 연속 마이너스 경제성장 후 2021년에 플러스 경제성장 회복 전망

- 아르헨티나 경제는 2018년 가뭄으로 인한 농업 생산량 급감, 소비자물가 폭등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민간투자 둔화 등의 결과, -2.6%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음. 이어 2019년에는 8월 대선 예비선거 직후 국채가격 및 폐소화 가치 하락 등 금융시장이 악화되었으며, 연내 소비 및 투자 부진이 지속되어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또 다시 -2.1%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음.
-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보건 비상조치가 실시된 3월부터 경제활동이 전면 둔화되었으며, 그 결과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무려 10%p 가까이 악화된 -11.8%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21년에는 기저효과 및 각종 보조금 정책의 효과 등으로 인해 4.5%의 플러스 성장 회복이 전망되나, IMF의 요구에 따라 재정지원의 방향이 긴축정책으로 선회할 시 민간소비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임. 또한, 정부 정책의 낮은 신뢰도 및 만성적인 환율 왜곡이 지속되는 한 위축된 민간투자 역시 회복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공공요금 동결의 완화 등으로 소폭 상승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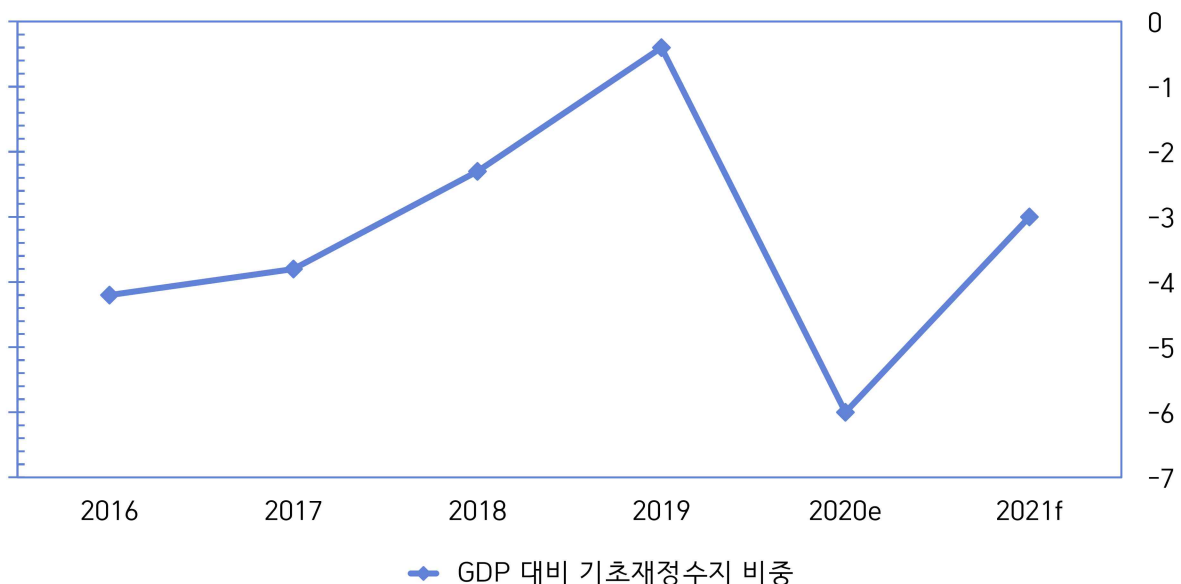
- 2019년 아르헨티나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8월 대선 예비선거 이후 폐소화 가치 폭락에 따른 수입물가 급등, 보조금 삭감 조치에 따른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인해 53.5%를 기록하며 1991년의 84% 이후 최고 수준을 경신했음.
-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국적인 의무 자가격리, 페르난데스 행정부의 가격상한제 및 환율조정 정책 등으로 인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53.5%) 대비 11.5%p 하락한 42.0%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21년에는 정부가 공공요금 동결과 가격상한제를 모두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전년 대비 5%p 상승한 47.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은 2021년에도 상품가격 상승에 따라 고인플레이션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경제활동 재개로 인한 정부재정 확충 및 일관된 통화정책 실시 등을 통해 현재의 인플레이션 수준보다는 감소시킬 것이라고 언급함.

국내경제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한 확장적 재정정책 실시로 재정적자 규모 증가

- 2018년 IMF 구제금융 수혜 이후 수출관세 부과, 공무원 감축 등 강력한 긴축 재정정책을 시행한 결과, 2019년 아르헨티나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4.5%를 기록하며 전년(-5.5%) 대비 소폭 개선되었음.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부정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페르난데스 행정부는 같은 해 3월 111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시작으로, 2021년 3월 4일 기준 2020년 GDP의 6%에 달하는 대규모 재정부양 프로그램을 실시함. 이에 따라 2020년 아르헨티나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11.4%로 크게 악화된 것으로 추정됨.
- 한편, 2021년에는 전년에 실시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축소(보조금 삭감 등) 및 증세(일회성 부유세, 수출관세 등 부과)를 통해 전년(-11.4%) 대비 절반 이상 줄어든 -4.5%의 GDP 대비 재정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러한 재정건전성 정책의 행방은 IMF가 채무재조정의 대가로 아르헨티나 정부에 제시할 금융지원 조건에 달려 있음.
- IMF는 아르헨티나에 2024년 말까지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e)의 균형 회복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나, 페르난데스 행정부는 거시경제 안정성 제고를 위해 단기적으로 재정적자를 조속히 축소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2021년 2월 8일자 IMF Press Release에 따르면, IMF는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아르헨티나의 현 상황을 고려하여 재정건전성 확보와 취약계층 지원을 균형적으로 요구할 계획임.

아르헨티나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비중 추이 (단위: %)



자료: EIU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 구 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e |
|-----------|---------|---------|---------|---------|-------------------|
| 경 상 수 지 | -15,105 | -31,151 | -27,049 | -3,997 | 2,138 |
| 경상수지/GDP | -2.7 | -4.8 | -5.2 | -0.9 | 0.6 |
| 상 품 수 지 | 4,416 | -5,447 | -743 | 18,227 | 12,520 |
| 상 품 수 출 | 57,960 | 58,662 | 61,801 | 65,155 | 54,628 |
| 상 품 수 입 | 53,544 | 64,109 | 62,544 | 46,928 | 42,108 |
| 외 환 보 유 액 | 33,563 | 50,107 | 59,238 | 39,221 | 33,910 |
| 총 외 채 | 190,490 | 241,277 | 282,296 | 277,261 | 264,191 |
| 총외채잔액/GDP | 34.2 | 37.5 | 54.6 | 62.4 | 69.0 |
| D.S.R. | 39.2 | 169.2 | 138.7 | 37.5 | 44.3 |

자료: IMF, EIU

내수 부진으로 인한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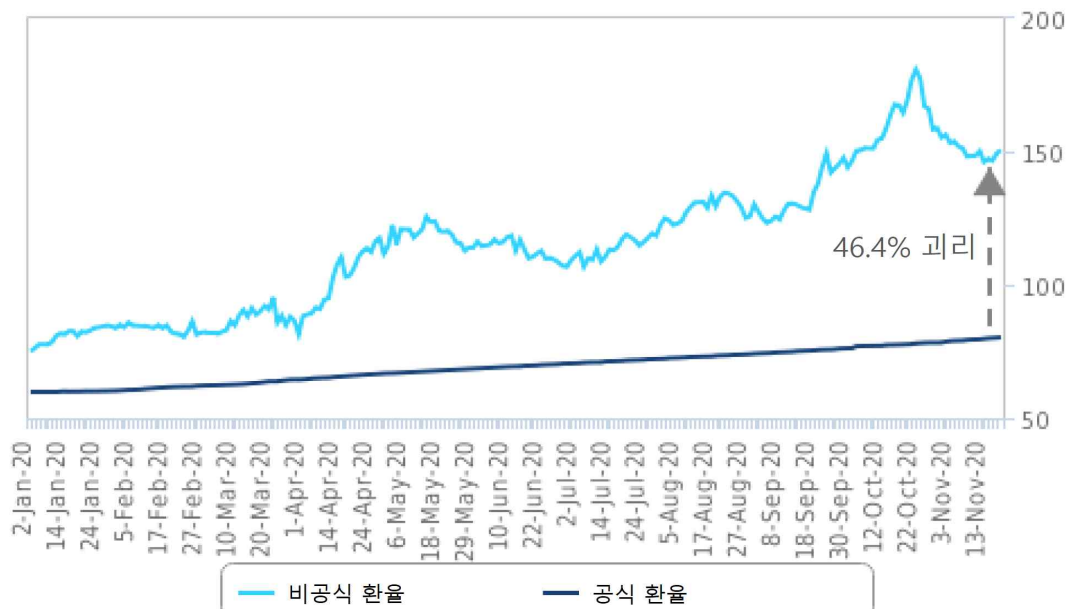
- 2019년 아르헨티나산 대두의 對중국 수출 증가 등으로 상품수지가 흑자 전환하면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0.9%를 기록하였으며, 2020년에는 상품수지 흑자가 전년 대비 31.3% 감소하였음에도 서비스수지 및 소득수지 적자폭이 전년 대비 줄어들어 GDP 대비 0.6%의 경상수지 흑자 전환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소비 및 투자 위축에 따라 경제성장이 둔화되어 수출과 수입이 동반 감소하여, 경상수지 흑자 전환은 오히려 아르헨티나의 내수 부진이 심화되었음을 보여줌.
-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반적으로 무역량이 감소함. 상품수출은 전년 대비 16.2%, 상품수입은 전년 대비 10.3% 감소하였으며,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소득수취를 모두 반영한 총수출증가율은 -19.5%를 기록함.
- 2021년에는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일부 벗어나 내수 활성화 및 무역수지 회복이 전망되나, 강우량 부족으로 인한 농축산물 생산 및 수출 위축 가능성, 물가상승 제어를 위한 페르난데스 행정부의 농축산물 수출 제한 정책 실시 등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아르헨티나의 부진한 해외직접투자(FDI) 유입 및 자본유출(capital flight)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시,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의 높은 국제수지 리스크는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외채상환능력

2020년 외환보유액은 페소화 가치 방어 과정에서 꾸준히 감소

- 일반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는 외환보유액 증가로 이어지나, 2020년 아르헨티나의 외환보유액은 경상수지 흑자 전환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13.5% 감소함. 이는 페르난데스 행정부가 페소화 가치 하락과 그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을 저지코자 페소화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보유액을 소진하고 있음을 나타냄. 다만, 전반적으로 수입이 감소하면서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 비율은 5.2개월분에서 6.0개월분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페르난데스 행정부는 2021년 10월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 계속 페소화 가치 방어에 주력할 것으로 보임.
- 미 달러 대비 페소화 가치(연평균)는 2018년 28.09페소, 2019년 48.15페소, 2020년 70.55페소를 기록하며 꾸준히 약화되어 옴. 이에 대응한 페르난데스 행정부의 적극적인 환율방어 정책으로 인해, 아르헨티나의 외환보유액은 2018년 592억 달러, 2019년 392억 달러, 2020년 339억 달러로 꾸준히 감소함. 2021년 미 달러 대비 페소화 가치는 104.39페소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어, 외환보유액 역시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임.
- 최근 페르난데스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낮은 신뢰도로 인해 지하경제로 유입되는 미 달러화가 증대되면서, 공식·비공식 환율 간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추세임. 미 달러화 부족 및 페소화 가치 하락의 악순환이 지속될 시, 공식·비공식 환율 간 차이는 2021년에도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 2020년 12월 2~3일 개최된 2020 한-아르헨티나 경제협력 세미나에서 마리나 달 포게토 에코고(EcoGo) 전무이사는 2021년 페르난데스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할 시 공식·비공식 환율은 각각 143.6페소, 187페소를 기록할 것이나, 경제정책이 실패할 시 공식·비공식 환율은 각각 160페소, 360페소로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전망함.

페소/달러 공식·비공식 환율 추이 (단위: 페소/달러)



자료: Bloomberg, Fitch Solutions

외채상환능력

1,070억 달러 규모의 채무재조정 협상 타결 이후 IMF와 협상 지속

- 아르헨티나는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외조달에 크게 의존해 옴. 실제로 대규모 국채 발행 및 IMF 대기성차관(SBA) 도입 등으로 인해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2016년 34.2%에서 2020년 69.0%로 급증하였으며,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율 역시 2016년 172.1%에서 2020년 264.8%로 증가함.
- 2020년 9월 페르난데스 행정부는 주요 채권단과 총 1,070억 달러 규모의 채무재조정 협상 타결에 성공하였으며, 이를 발판삼아 2021년 1월 44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제공 중인 IMF와 채무재조정 협상을 본격화함. 동 협상은 기존의 대기성 차관(Stand-By Arrangement, SBA)이 아닌, 구조적으로 취약한 국가에 제공되는 장기자금 성격의 확대신용공여(Extended Fund Facility, EFF)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논의될 예정이며, 이는 향후 아르헨티나 국가경제(특히 폐소화 가치)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임. 다만 협상이 성공적으로 성사된다 해도 구제금융 이행 리스크(implementation risk)는 상존할 것으로 전망됨.
- 마르틴 구즈만 아르헨티나 경제부 장관은 2021년 1월 27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IMF와 440억 달러 규모의 채무재조정 협상을 2021년 5월까지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한편, 알레한드로 워너 IMF 서반구국장은 2021년 2월 8일자 IMF Press Release를 통해 아르헨티나 정부의 '5월 협상 타결 목표'는 실현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야심찬(ambitious) 목표라고 언급함.

IMF 금융지원 프로그램 : 대기성 차관(SBA)과 확대신용공여(EFF)

| 구분 | 대기성 차관(SBA) | 확대신용공여(EFF) |
|--------------|--|--|
| 목적 | 단기적인(혹은 잠재적인) 국제수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회원국 지원 | 구조적 취약성, 고질적 저성장 등에 따른 심각한 중장기적 국제수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회원국 지원 |
| 만기 | 최대 3년이나, 대부분 1~2년 | 최대 4년 |
| 특징 | 협약시 약속한 금융지원 조건의 이행 여부를 사후적(ex-post)으로 모니터링함 | 협약시 약속한 금융지원 조건의 이행 여부를 사후적(ex-post)으로 모니터링하되, '구조개혁(structural reform)'을 중심으로 함 |
| 對아르헨티나 지원 횟수 | 19회 (1958~2018) | 2회 (1992, 1998) |

자료: IMF

구조적취약성

농축산업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

- 남미 대륙 남단 팜파스(Pampas) 대평원의 넓은 곡창지대를 보유한 아르헨티나는 비옥한 농지와 온화한 기후조건을 바탕으로 농축산물 생산 및 수출에 주력하고 있음. 2020년 기준 아르헨티나의 농축산업은 전체 GDP의 12.8%(전년 11.6%)을 차지하며,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USDA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2018년 기준 대두박 수출 세계 1위 및 옥수수 수출 세계 2위, 밀 수출 세계 5위 국가임.
- 아르헨티나는 농축산물 및 가공품이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기후에 따른 농축산업 생산량과 농산물 국제가격 변동에 국가경제가 크게 영향을 받음. 이는 아르헨티나의 거시경제적 취약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됨.
- USDA에 따르면, 최근 아르헨티나(특히 중북부 지방)의 건조한 날씨로 인해 2020/21년 밀 및 옥수수 생산량은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밀 수확량은 전년 대비 350만 톤 감소한 1,750만 톤, 옥수수 수확량은 전년 대비 50만 톤 감소한 4,700만 톤에 그칠 것으로 보임.

도로 및 철도 관련 인프라 미비

- 세계경제포럼(WEF)의 2019년 글로벌경쟁력지수 보고서에서 아르헨티나는 세계 141개국 중 인프라 분야에서 68위를 차지함. 세부 지표로는 도로 상태 부문에서 92위, 철도서비스 효율성 부문에서 79위 등을 기록하며 도로 및 철도 관련 인프라가 미비한 것으로 평가됨.
- 또한 글로벌 인프라 허브(GIH)에 따르면, 현 추세가 유지될 시 2016~40년 아르헨티나의 인프라 투자 규모는 4,520억 달러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동 기간 인프라 투자 필요 규모로 추정되는 8,100억 달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함. 특히 필요 규모에 가장 미달하는 부문은 도로이며, 2040년까지 아르헨티나 GDP의 2.4%가 도로 관련 인프라에 투자되어야 필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성장잠재력

풍부한 부존자원 보유

- 아르헨티나는 세계 8위 규모의 국토면적(2,792천 km²)을 기반으로 막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국가임. 세계 6위 광물자원 보유국임에도 아직 국토의 75% 가량이 자원 미개발 지대로 남아 있어, 향후 자원 개발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됨.
- 셰일가스 매장량 세계 2위, 셰일오일 매장량 세계 4위, 리튬 매장량 세계 3위 국가로 투자기회가 많음.
- 특히 리튬은 휴대용 전자기기, 전기차, 로봇 등 산업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신성장동력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2차전지의 주원료로서, 향후 활발한 상업적 개발을 통한 국부 창출이 기대됨.
- 미 지질조사국(USGS)의 2021 광물자원 개요 보고서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리튬 매장량(reserves, 부존이 확인된 시점에 상업적으로 회수가능한 양)은 190만 톤으로 칠레, 호주에 이어 3위를 기록했으며, 리튬 자원량(resources, 지구의 표면이나 내부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총량)은 1,930만 톤으로 볼리비아에 이어 2위를 기록함.
- 한편, SNE리서치의 리튬이차전지 주요 소재 업체 심층분석 보고서(2020. 2월)에 따르면, 세계 리튬이온배터리(LiB) 수요량은 2019년 198GWh에서 2030년 3,392GWh로 약 17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더 나은 재건'(Building Back Better)을 위한 동력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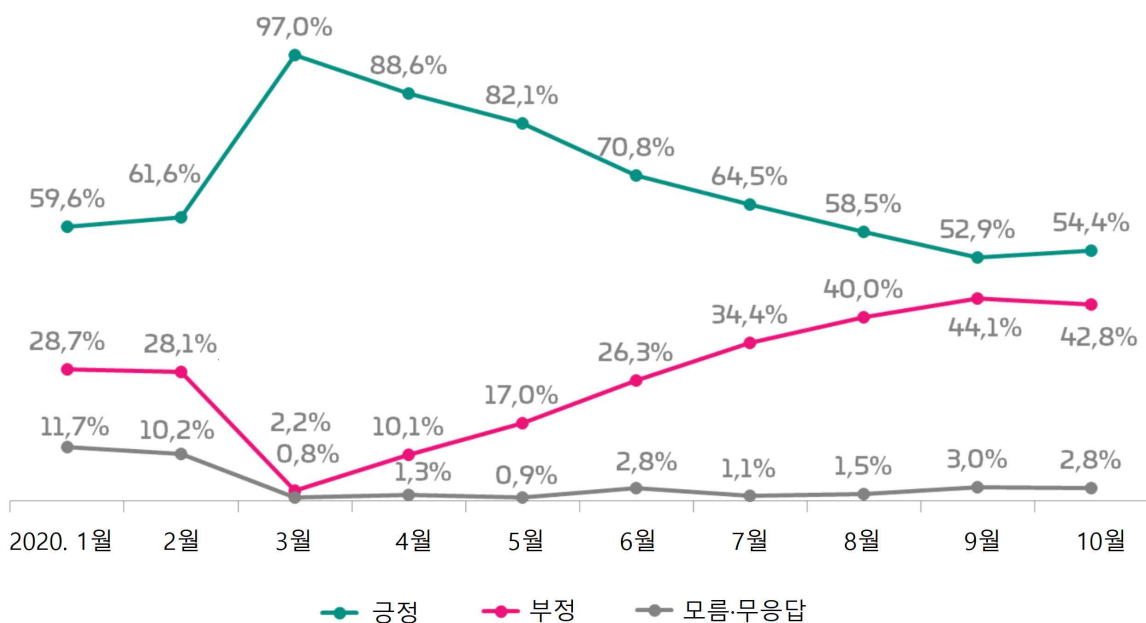
- 세계경제포럼(WEF)의 2020년 글로벌경쟁력지수 특별 보고서에서 아르헨티나는 세계 주요 41개국 중 'ESG를 고려한 장기적 투자 지원 및 포용성 확대 측면' 및 '신사업·신기술 등을 위한 "내일의 시장"(Markets of Tomorrow) 조성 촉진 측면'에서 최하위를 차지함.
- 이 두 지표는 모두 사람 중심의 회복 및 사회적 포용성 개선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회복을 가리키는 개념인 '더 나은 재건'(Building Back Better)의 평가기준으로, 이들 지표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것은 아르헨티나가 코로나19 위기상황으로부터 회복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성이 높은 신성장의 영역에 장기적으로 투자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
- 한편,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2020년 세계투자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아르헨티나의 해외직접투자(FDI) 유입액은 경제위기 심화로 인해 전년(119억 달러) 대비 절반 수준인 62억 달러를 기록함. 아마존, GM, 나이키 등 미국 유수의 기업들은 투자 계획을 보류하였고, 농업에 이은 아르헨티나 제2의 성장동력으로 각광받았던 바카 무에르타(Vaca Muerta) 지역 내 셰일자원 개발은 경제위기 및 코로나19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활력을 다소 잃은 상황임.
- 이에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2020년 10월 15일 바카 무에르타 지역 자원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천연가스 생산 촉진계획을 발표하고, 앞으로 중소기업의 사업 참가를 독려함으로써 아르헨티나의 고부가가치 생산 능력을 높이고 고용을 많이 창출할 것이라 밝힘. 페르난데스 행정부의 이 같은 투자 촉진책은 아르헨티나의 경제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정책성과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경기부양 및 사회보장 정책 마련

- 페르난데스 행정부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의 사회 전반에 대한 부정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0년 3월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확산 초반부터 강도 높은 봉쇄조치를 실시하였고, 즉각적으로 경기부양 및 사회보장을 아우르는 대응책을 발표함. 이를 통해 이웃 국가들에 비해 성공적인 방역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으며, 페르난데스 행정부 국정지지율은 2020년 3월 당시 97.0%를 기록하였음.
- 경기부양 정책은 공공분야 사업 예산 증액, 기업 최대 연간 신용한도 26%로 상향 조정, 일시적 세제 혜택, 주택구입자금 마련 신용한도 신설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사회보장 정책은 기본 식료품 등 50가지 생활필수품목의 가격 일시 동결, 최저 연금수급자 대상 보너스 지급, 실업보험 혜택 일시 연장 적용 등으로 이루어짐.
- 그러나 이 같은 강력 봉쇄조치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기 시작하며 장기간 실시된 봉쇄조치에 따른 국민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하였고, 같은 해 10월 페르난데스 행정부 지지율은 54.4%로 하락함.
- 한편, 2020년 9월 주요 채권단과 총 1,070억 달러에 달하는 채무재조정 협상 타결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며 주요 국제신용평가사들로부터의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뒤이어 시작된 IMF와의 채무재조정 협상이 금년 안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인지는 미지수임.
- IMF와의 협상이 현 목표대로 2021년 5월 안에 타결된다면, 이는 폐소화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경제상황 회복으로 이어져 페르난데스 행정부의 정책효과도 함께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페르난데스 행정부의 국정지지율 추이 (2020. 1~10월)



자료: Zubán Córdoba y Asociados

정책성과

빈곤율 및 실업률 급상승

- 취약계층 대상 광범위한 사회보장 정책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2020년 아르헨티나의 빈곤율과 실업률은 급상승하고 있음. 아르헨티나 가톨릭대학 부설 사회부채연구소(ODSA)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 아르헨티나의 빈곤율은 44.2%, 3분기 실업률은 14.2%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2%p, 3.6%p 상승한 수치임. 특히 빈곤율은 2004년 경제위기(44.3%) 이후 최대 수치임.
- 식료품 부족 인구는 10.4%, 의료 서비스 이용 불가 인구는 25.1%, 약품 구매 불가 인구는 21.8%에 달하는 등 극빈층 역시 증가하고 있음. 이는 2020년 -11.8%의 마이너스 경제성장률 및 42.0%의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며, 국민들의 삶의 질 회복을 위한 사회보장 정책의 성과가 제한적이었음을 드러냄.

기준금리 인하 적극 단행

-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2019년 12월 페르난데스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2020년 3월 6일까지 약 3개월간 총 8회의 기준금리 인하(63%→38%, -25%p)를 단행함. 이는 확장적 통화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 둔화 양상을 해소하고 경제활동 회복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2020년 3월부터 의무 자가격리를 실시하면서 소비·생산활동이 사실상 중단되어, 국가경제에 본래 목적만큼 유의미한 파급효과를 주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 이후 2020년 10월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두 차례 인하(38% → 37% → 36%)하였으나, 1) 10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연중 가장 높은 3.8%를 기록한 점 및 2) 11월에 경제활동 재개 조치가 취해진 점 등을 감안하여 기준금리를 다시 38%로 인상함.

아르헨티나 기준금리(LELIQ) 추이 (단위: %)



자료: BCRA, Trading Economics

정책성과

대규모 재정부양 프로그램의 친환경성 제고 필요

- 2021년 3월 4일 기준 페르난데스 행정부는 2020년 GDP의 6%에 달하는 재정부양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친환경적 요소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재정부양 프로그램의 친환경성 제고 필요성이 제기됨.
- 영국 환경 컨설팅 업체 Vivid Economics의 2021년 녹색경기부양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녹색경기부양지수는 -60점으로 세계 주요 30개국 중 22위를 기록함(브라질 17위, 콜롬비아 20위). 농수산 활동 관련 태양광 산업 지원(54만 달러) 및 석유 수입 제한 조치 등 친환경적 부양책도 시행되었으나, 환경 관련 규제 완화 및 환경 유해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의 반환경적 정책으로 인해 부정적 평가를 받음.
- 또한 세계경제포럼(WEF)의 2020년 환경성과지수 조사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세계 180개국 중 54위를 차지하며 준수한 결과를 보였으나, 생물다양성 부문에서 120위, 생태계 서비스 부문에서 112위를 기록하며 비교적 낮은 순위를 기록함.

<아르헨티나의 코로나19 대응책> (2021. 3. 4 기준)

| 구분 | 내용 |
|------|---|
| 재정정책 | 2020년 GDP의 약 6%(예산 내 지출 4%, 예산 외 지출 2%)에 달하는 재정부양책 공표 1. 보건복지 지출 확대 : 코로나19 바이러스 진단 체계 개선, 의료장비 구입, 병·의원 건설 등 2. 근로자 및 취약계층 지원 : 빈곤층 이전지출 확대, 저소득 수혜자들 중심의 사회보장연금 혜택, 실업보험 혜택, 최저임금 근로자 지원 등 3. 피해부문 지원 : 사회보장부담금 면제, 인건비 보조, 건설 관련 활동 대출 지원 등 4. 상환유예(forbearance) : 연체 가구 생활서비스 지속 제공 등 5. 공공사업 지출 등 보조, 식료품 등 생산 중소기업 신용보증 제공 등 |
| 통화정책 | 은행 대출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조치 시행 1. 가계 및 중소기업 앞 은행 대출 관련 지급준비율 인하 2. 중앙은행 매입 채권 보유 한도 규제 3. 은행 대손충당 요건 일시적 완화 4. 부도수표로 인한 계좌 해지 및 급여세 연체 기업 앞 신용거래 거부 관련 유예 조치 |
| 대외정책 | 2019년 8월 이후 광범위한 외환규제 지속 1. 금융계정 측면 : 미 달러화 구입 및 국외이전, 외화채무상환 등 제한 2. 경상계정 측면 : 수출자의 외환매각의무(surrender requirement) 도입, 서비스 수입 및 배당금·이자의 국외지급 등 제한 |

자료: IMF Policy Tracker(2021)

정치동향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부통령 주도의 국가개입주의 가속화

- 2019년 12월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현 행정부 출범 이후, 2007~15년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현 부통령 및 친(親)정부 좌파 청년조직 라 캠포라(La Campora)의 국가개입주의(state interventionism)가 가속화됨. 이는 마크리 전 정부의 친시장주의와는 대비되는 것으로, 페르난데스 행정부는 국가경제 운영의 초점을 물가·환율 관리 및 빈곤 해소에 맞추고 있음.
-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부통령은 2007~15년 대통령으로 재임하며 철도, 상·하수도, 항공사 등을 국영화하고 연금지급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국가개입주의에 기반한 정책들을 추진한 바 있음.
- 특히 외환보유고 확보를 위한 페르난데스 행정부의 자본통제 정책이 점차 심화되면서, 2020년에는 중남미 최대 백화점 체인인 칠레 팔라벨라(Falabella)를 비롯, 중남미 최대 항공사인 칠레 라탐 항공(LATAM Air), 미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액솔타(Axalta), 독일 화학업체 바스프(BASF), 프랑스 제약회사 피에르 파브르(Pierre Fabre), 미국 글로벌 무선통신사업 서비스 회사 브라이트스타(Brightstar) 등이 아르헨티나로부터 철수 의사를 발표함.
- 이에 주 아르헨티나 미 상공회의소 알레한드로 디아스 회장은 외환, 수입, 물가 등에 대한 페르난데스 행정부의 통제가 심해질수록 기업들이 향후 사업계획을 발전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발언함.

부두 전 부통령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 지속

-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정권의 주요 인사인 부두 전 부통령은 경제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0년 당시 조페 회사 치코니 칼코그라피카(Ciccone Calcográfica)의 파산을 막아주는 대가로 해당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혐의로 2018년 8월에 징역 5년 10개월을 선고받았고, 2019년 8월에는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추가 선고받음.
-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부통령을 비롯한 전 정권 인사들 및 중도좌파연합 '모두의 전선(FdT)' 내 강경파들은 이러한 판결을 과거 좌파 페론주의 정권을 음해하기 위한 사법부와 언론의 정치적 박해로 규정하며, 부두 전 부통령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야당 및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등은 이러한 행태가 사법개혁을 빌미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일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함.
- 아르헨티나 주요 언론에 따르면, 최근 관련 판사들 보직 변경 조치, 친여 성향 신규 판사 임명 시도, 측근 검찰총장 임명 시도 등을 미루어볼 때,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 등을 우려하는 의견들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며, 부두 전 부통령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정치동향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린 전국 반정부 시위 발생

-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응 격리조치 등에 대한 피로도 누적, 경제상황 악화 등을 이유로 5월부터 아르헨티나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5.25, 6.20, 7.9, 8.17, 9.13, 10.12, 11.8 등). 시위대의 주요 요구는 삼권분립 유지, 이동의 자유 확보, 민주주의 사수, 페르난데스 대통령 탄핵 등임.
- 특히 2020년 8월 17일 사법개혁 반대 및 코로나19 위기 대응책 규탄 등을 주제로 한 시위 '17A(17 de Agosto)'는 이미 발생 전부터 온라인을 통해 시민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확산되어 당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었고, 이를 발단으로 이후의 반정부 시위들 역시 전국적인 규모로 확산됨.

사회동향

옥수수 수출 제한 조치 관련 혼란 야기

- 2020년 12월 30일 아르헨티나 농림축산수산부는 축산품의 가격 안정화를 목적으로 가축 사료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옥수수의 수출을 2021년 3월 1일까지 금지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아르헨티나 농업협의회 및 주요 농민단체들(Sociedad Rural Argentina, CRA 등)는 항의서한 전달 및 3일간 곡물 유통 중단 등 시위를 전개함. 이에 불과 열흘만인 2021년 1월 11일 옥수수 수출이 잠정적으로 재개되었으나, 이는 옥수수 수출량 하루 3만 톤 제한을 조건으로 한 조치임.
- 수출 재개에도 불구하고, 주요 농민단체들은 이와 같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부정부패를 초래해 왔다고 비판하며 시위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힘.

'임신 14주 이내' 낙태 허용으로 인한 사회 분열 우려

- 프란치스코 교황의 모국인 가톨릭 국가 아르헨티나에서는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 및 임신부의 생명이 극심한 위협에 처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낙태가 허용되는 1921년 법을 최근까지 유지해 왔음. 그러나 성소수자 및 여성의 권리 신장을 제창했던 페르난데스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낙태 허용 운동의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되어, 2020년 11월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직접 낙태 허용 법안을 의회에 제출함.
- 동 법안은 2020년 12월 11일 찬성 131 대 반대 117로 하원에서 가결되었으며, 30일 찬성 38 대 반대 29로 상원에서 가결됨. 이로써 아르헨티나는 가톨릭 전통이 강한 중남미 지역에서 낙태가 허용되는 가장 큰 국가가 됨.
- 낙태 허용 전후로 '녹색 물결'로 대표되는 여성운동 세력과 이를 반대하는 가톨릭 교회 등 집단들의 격렬한 시위가 지속되었으며, 동 법안의 통과로 인해 아르헨티나 사회의 분열이 심화될 것으로 보임.

국제관계

남미공동시장 의장국 수임

- 2020년 12월 16일 아르헨티나는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Mercosur) 의장국을 수임하였으며, 2021년 상반기까지 의장국을 맡게 됨. 2021년 기업포럼(Foro Empresarial)을 개최하여 농업 및 디지털서비스 분야의 기업협력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며, 여러 국가들과 통상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올해 브라질·우루과이·파라과이와 함께 레바논, 이스라엘, 도미니카공화국 등과 무역협상을 적극 진행할 것으로 보이나, 2019년 6월 체결에 합의한 메르코수르와 유럽연합(EU)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우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문제로 인한 브라질과 유럽 국가들 간의 마찰, 페르난데스 행정부의 반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협상 진전이 어려울 전망이다.

브라질과의 관계 개선 전망

- 인접국이자 역내 라이벌인 브라질과의 관계는 2019년 10월 말 좌파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승리한 후 악화됨. 극우 성향의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승리에 대해 아르헨티나가 최악의 선택을 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개최된 페르난데스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하지 않음.
- 이후 시울리 브라질리아 주재 아르헨티나 대사 등의 면담 성사 노력에 따라, 2020년 11월 30일 양국 대통령은 '우정의 날' 35주년을 계기로 화상 면담을 최초 실시하였으며, 과거의 차이는 뒤로 한 채 양국 공통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함.
- 이에 주요 언론들은 그간 악화된 양국 관계가 개선될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함.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 중국은 아르헨티나와 1972년 국교 정상화를 통해 공식적으로 수교를 맺은 이후, 지속적으로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며 점차 줄어드는 외환보유액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우려를 덜어내는 데 기여함.
- 또한,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중국이 대두박 등 주로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던 농산물을 아르헨티나로부터 수입하기 시작하여, 아르헨티나는 미·중 무역분쟁의 반사이익을 얻은 것으로 평가됨.
- 아르헨티나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아르헨티나의 對중국 무역액은 141억 달러로, 브라질(166억 달러)에 이어 2위를 기록함.
- 한편, 페르난데스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2020년 9월 전화통화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양자간 백신 협력체계 및 교역·투자,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 등을 공고히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2021년 1월에는 서한 교환을 통해 5월 초 예정인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함.
- 이를 통해 아르헨티나의 중국 시노팜 코로나19 백신 구매계약 체결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고, 실제로 한 달 후인 2월 22일 아르헨티나 보건당국은 시노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승인을 공식화함.

외채상환태도

외채상환태도는 개선 추세이나 대규모 연체액 존재

- 아르헨티나는 2001년 1,000억 달러의 부채에 대한 대규모 디폴트 선언을 비롯하여 독립 이후 총 9차례 국가부도를 선언하였고, 1956년 9월 20일 IMF에 가입한 이래 IMF와 21차례에 걸쳐 구제금융에 합의함.
- IMF는 2018년에도 마크리 행정부와 57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에 합의하였고 그중 440억 달러를 지급하였으나, 뒤이어 출범한 페르난데스 행정부는 추가 지원금 수령을 거부함.
- 2020년 9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들로부터 제공받은 중장기 여신잔액 40억 7,920만 달러 중 37.5%에 해당하는 15억 3,070만 달러가 연체 상태에 있음. 이는 전년 동기의 38.0%보다는 소폭 개선된 것이나, 직전 분기인 6월 말의 36.1%보다는 악화된 수치임.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 평가기관 | 최근 평가등급 | 종전 평가등급 |
|---------|---------------|----------------|
| OECD | 7등급 (2020.10) | 7등급 (2019.10) |
| Moody's | Ca (2020.04) | Caa2 (2019.08) |
| Fitch | CCC (2020.09) | RD (2020.05) |

OECD 7등급 유지, 국제신용평가사의 등급은 채무재조정 협상 타결에 따라 일부 상향 조정

- 2020년 10월, OECD는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거시경제 상황 및 최근 채무재조정 협상 타결 건 등을 고려하여 평가등급을 7등급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함.
- 2020년 5월에 만기가 도래했던 5억 300만 달러 규모의 부채이자를 아르헨티나가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아르헨티나의 국가신용등급을 Moody's는 Ca(원금/이자를 일부 회수할 수 있는 파산 상태), Fitch는 RD(제한적 디폴트)로 각각 하향 조정함.
- 그러나 2020년 9월 주요 채권단과 채무재조정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아르헨티나의 국가신용등급을 Fitch는 CCC로 상향 조정함.
- 이러한 신용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국가신용등급에는 아르헨티나의 유동성 및 외채상환가능성에 대한 국제금융시장의 불신이 여전히 반영되어 있음. Moody's는 아르헨티나가 현재로서 채권자들에게 합리적인 상환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지 않음.

- 아르헨티나 경제는 2020년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따른 소비 및 투자 둔화에 따라 -11.8%의 마이너스 성장을 시현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GDP의 6%에 달하는 재정부양책을 실시하여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11.4%로 대폭 악화된 것으로 추정됨.
-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며 아르헨티나는 주요 對중국 농산물 수출국으로서의 입지를 확보해가며 분쟁의 수혜를 받음. 또한, 중국 시노팜 코로나19 백신 구매계약을 조속히 체결하는 등 중국과 일대일로(一帶一路) 기반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이념상 차이로 악화되었던 브라질과의 관계 역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페르난데스 행정부는 2020년 9월 총 1,070억 달러 규모의 채무재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으며, 이후 IMF와 440억 달러 규모의 채무재조정 협상을 진행 중임. 동 협상의 진행 경과는 향후 아르헨티나 정부에 대한 국제금융시장의 신용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